

시,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베트남 무역상담회·중국 국제프리미엄 등 생활소비재전 참가

전주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베트남 무역상담회'와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국 국제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 전시회'에 참가해 각각 25개사의 등 총 50여개 현지업체 바이어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의 주요 거점 도시인 호치민과 하노

이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무역상담회'에는 항공기 시뮬레이터 제작업체인 (주)바르텍시너지(대표 구철호)를 비롯해 비케이씨(대표 김근식), 대승(대표 박경민), 엔투인(대표 최승관), (유)넷토퍼(대표 김석곤), (주)씨에피코리아 등 우수제품을 가진 전주소재 기업 6곳이 파견돼 현지 25개 기업 바이어들과 1:1 매칭 무역상담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오는 11월 10일부터 5일간 중국 성도 세계성 신국제회전중심센터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 전시회'에도 전주시 3개 기업이 파견돼 현지 25개 기업 바이어들과 만나 중국진출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중국 국제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 전시회는 12개국 800여사(약 1,000부스)가 참여하게 되는 국제전시회로, 시는 리빙디자인과 뷰티, 베이비키즈, 프

랜차이즈 및 유통 등 우수업체를 선정해 바이어 프로모션과 1:1 비즈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하반기 전주시정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에 두고,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판로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지원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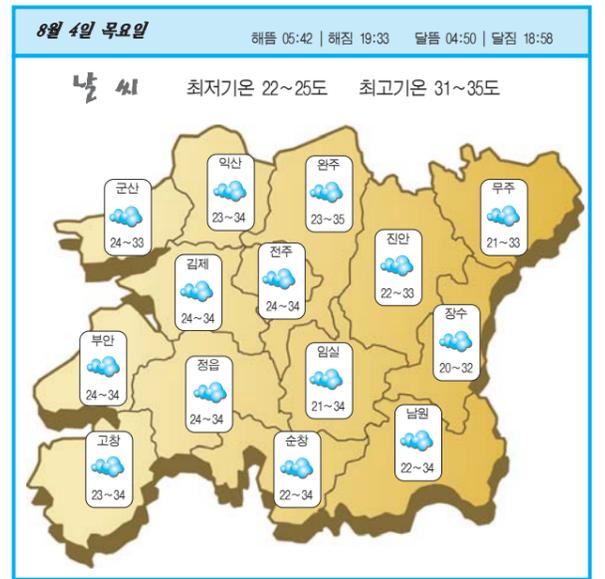
시는 김승수 시장 주재의 지역기업 살리기 현안회의를 격주로 실시하고, 각 부서별 지역기업 제품 구입 실적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 등 지원 사항을 점검해나가고 있다. 또, 시장이 직접 지역업체를 방문해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현지 무역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힘써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주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제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전시회 참가비 및 통역비 100%, 항공 및 숙박비의 50%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063-219-034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기자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키로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갈등과 관련해 학교 측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대는 3일 오전 9시에 개최된 긴급 교무회의에서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고 미래라이프대학 설립도 완전 백지화됐다.

이대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바로 본관 접거 농성을 중단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철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본관 앞에서 "농성을 당장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

이들은 "교육부에 확인 결과 아직 갈등과 관련해 학교 측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며 "우린 완전 철회가 확인될 때까지 본관 접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희 총장은 이날 낮 12시 학생들이 접거하고 있는 본관을 방문해 학교 측 방침을 설명하고 농성 중단을 당부할 예정이다.

미래라이프대학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다. 이대는 지난 5월 교육부가 이 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할 당시 신청을 해 동국대, 강원대, 한남대와 함께 선정됐다.

농성 과정에서 평의회 소속 교수, 교직원 등 5명이 본관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 지난달 30일엔 시설물 보호와 감금자 구조를 위해 학내에 경찰 1600여명이 진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스

전주시, 내년까지 56억원 투입 덕진예술회관 별관 증축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목적용·사무공간 등 갖춰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인 덕진예술회관에 소규모 공연장과 예술단원 연습실 등을 갖춘 별관 건물이 신축된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56억원을 들여 현 덕진예술회관 내 부지에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용과 예술단원 연습실, 사무공간을 갖춘 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덕진예술회관 내 공간 부족으로 지난 1997년 증축된 기실 건물에서 연습해온 국악단과 합창단 등 전주시립예술단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게 돼 전주시민들도 보다 품격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증축공사 발주에 이어 덕진예술회관 신관동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9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억원을 투입해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무대장치와 조명·음향시설 등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관람객의 공연관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객석(486석)을 전면 교체하는 등 덕진예술회관을 질 높은 다목적 공연장으로 탈



국민의 생명을 위해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관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전 같은 훈련을 받은 예비 소방관들은 내년 1월 일선 현장에 배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바람이 컸다. 이는 지난 1980년 문을 연 덕진예술회관이 30여년간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해 왔지만, 공연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주에 새로운 공연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연

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공연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덕진예술회관 별관이 신축되면 시립예술단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신관건물이 신축되면 덕진예술회관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시립예술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전용 공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김승환 도교육감, 8박10일 캐나다 해외 연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해외 연수 중인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난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이날부터 8박10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어학연수기관을 시찰하고 연수중인 초·중·고 영어교사들을 격려한다.

도 교육청은 영어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유창성을 높이고 수업에 관한 교수법 이론과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을 이용해 해외 어학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캐나다 연수에는 초등교사 20명이 빅토리아 대학에서, 중등교사 12명이 맥길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빅토리아 대학에서 어학 연수 중인 초등 교사들의 영어수업을 참관하며 빅토리아 교육청과 협의회를 갖는다.

/뉴스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